

전도부인 훈련을 마치고

김헬레나 권사 / 가주-태평양연회 한인 코오디네이터

한인 여성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부인 (Bible Women) 훈련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뉴욕시에 위치한 Alma Matthews House에서 열렸다. 이미 백여년 전부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전도부인 훈련을 통해 선교사역을 해왔던 감리교 여성교회는 중단되었던 이 훈련을 2000년부터 다시 시작했다.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일은 2005년 10월에 있었던 아시아 기독교여성 지도자훈련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미 전역에서 선교에 열정을 가진 한인 여성 지도자들 17명이 참가했고 훈련을 담당하신 분들은 여성국 직원인 Glory Dharmaraj, Karen Prudente, Sandra Ruby 그리고 김혜선 목사님이다.

4일간의 프로그램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의 집중훈련이었는데 아침예배로 하루를 열고 성경공부, 워십, 토론,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외선교를 위한 것이기에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었다.

FAMA 교육 방식

세계에는 약 13억의 성인들이 절대빈곤 속에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문맹이다. 실제로 굶주림, 질병, 불의와 같은 문제가 문맹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이 문맹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빈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러박 국제 문해재단」¹ (Laubach Literacy International)은 "사회변화를 위한 문해" (literacy for social change)라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 특징은 글을 몰라도 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FAMA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Facts (사실), Association (연상), Meaning (의미), Action(행동)의 첫 글자를 합친 말이다. 여성국에서는 전도부인 훈련을 위해서 이 FAMA 방식을 도입해 기독교적 요소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교는 Empowering (능력배양 프로그램)과 Helping (단순지원 활동)이라는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empowering은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일이고,
helping은 직접 도움을 주고 대신 해주어서 당장은 돕지만 그들의 위치는 향상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도부인 훈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일로서 justice와 empowering에 초점을 둔 선교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선교 개념

이번 훈련을 통해 선교의 방법에는 정의와 구제가 있으며 진정한 선교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먼저, 정의를 위한 일은 사회구조와 법을 변화시키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좋은 성서적 예로는 모세와 출애굽 사건이다. 반면에 구제는, 선교 대상을 짧은 시간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로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교는 Empowering (능력배양 프로그램)과 Helping (단순지원 활동)이라는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empowering은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일이고, helping은 직접 도움을 주고 대신 해주어서 당장은 돕지만 그들의 위치는 향상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도부인 훈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일로서 justice와 empowering에 초점을 둔 선교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 경제 자립, 평화

빈곤 문제는 경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경제자립, 환경, 교육, 평화, 인권 등 여러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이중 이번 훈련에서는 건강, 경제 자립, 그리고 평화(갈등 해소)에 관해 중점적으로 배웠다. 건강 분야는 건강의 중요성, 청결, 영양, 보호, 예방, 정서적, 영적 건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과 질문을 통해 건강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경제자립 과목은 먼저 복지를 위한 나의 자원이 무엇인지 평가한 후, 연대 그룹 만들기, 저축, 대출, 그리고 사업 시작과 성장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공부하였는데 우선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서는 국제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토론하였다.

성경 공부

이번 훈련기간은 성경 공부가 특히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허리 굽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몸, 정신, 영의 병 (dis- ease)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empowering women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허리를 펴고 곧게 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Shalom" 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 즉, 온전함,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평화의 일꾼 (shalom worker)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사야 65장 17-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새 하늘과 새 땅의 가능성 (alternative vision)을 보여주는 일이다.

훈련 이후 계획

중국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전도부인 훈련을 받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중 여섯 분이 3월 23일 한국을 들러 한국 여선교회와 팀을 만들어 중국에 가서 전도부인 훈련을 할 예정이다. 50여명의 조선족 여성들을 훈련하게 되는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이 글은 한인여선교회 소식지 2006년 3월호에 실렸던 글이다.